

# 물가에 빛까지 ‘쑥’...서민 살림 더 팍팍해진다

### 소비자물가 반년째 2%대 ↑...가스로도 불안 집값 상승세 여전...느는 빛에 이자 부담 커져

국민들 사이에서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는 푸념이 커지고 있다. 식료품 가격 등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뛰고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뒷걸음치고 빛은 늘어났는데 금리마저 오르고 있다.

◇안 오르는 게 뭐지?...“장보기 무섭다”

연초부터 시작된 식료품 가격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고추장, 양념장, 김밥, 참치캔, 막걸리, 햄버거, 맥주, 택배비, 과자, 달걀, 라면, 우유 등의 가격이 올해 들어 줄줄이 올랐다. 수입이든 아니든 원재료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5% 올랐다. 6개월째 2%대 상승이다. 농축수산물(3.7%), 공업제품(3.4%), 가공식품(2.5%) 등이 뛰었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경유(23.8%), 휘발유(21.0%) 등 석유류는 22.0% 급등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지난 4일(현지시간) 77.62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로 뛰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기름값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전 분기보다 3.0원 인상됐다.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대 1천500원을 더 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도 불안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원료인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도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홀수달마다 조정하는 가격을 11월에는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계속 동결할지는 불투명하다.

◇전·월세 등 주거비에 빛 부담도

주거비도 계속 부담이다. 지난달 전세(2.4%)와 월세(0.9%) 등 집세는 1.7% 상승했다.

일반인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천978만원으로, 12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들어서만 1억5천만만 넘게 올랐다.

올해 1-9월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가격이 11.98% 올라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9.87%)과 2006년(11.60%)의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후퇴하고 주택자금과 생활자금 수요 등이 커지면서 빛도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천46조3천억원으로 올해 들어 57조5천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8월 증가액 34조5천억원보다 23조원 많다.

금리 상승세는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8-4.53% 수준으로 한 달 사이에 0.35%포인트 안팎 뛰었다.

한국은행이 과잉 유동성 회수와 물가 관리 등을 위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2조9천억원, 5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1조5천억원, 2조9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 ● 투데이 경제

### 9월까지 김 수출액 6천억 돌파 ‘최고’

해수수산부는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한국 김 수출액이 5억달러(약 5천982억5천만원)를 돌파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김 수출액은 모두 5억700만달러(약 6천66억2천550만원)로 집계됐다.

김 수출액이 처음으로 5억달러를 넘어선 2017년 12월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단기간에 5억달러를 넘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김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낸 지난해(6억1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2007년 6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2010년에는 60여 개국에 수출하는 데 그쳤지만 현재는 전 세계 112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지속해서 개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농어촌공사 ‘건설재해 예방’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이 낮은 건설사에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2점-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4점-2점으로 상향한다. 또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 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수회기자

### 전남신보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1위’

전남신보보증재단(이사장 정양수·이하 전남신보)이 전남도 주관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0.93점으로 15개 출연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간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 고객만족경영 마인드 확산과 도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전남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남신보는 ‘기관지지 만족도’(93.53)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보증 및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최상으로 이끌어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7곳 “내년에 중대재해법 준수 어려워”

### 경총·중기중앙회 조사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7곳은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능 여부 질문에 응

답 기업의 66.5%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77.3%)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중복 응답)로는 가장 많은 47.1%가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31.2%), ‘안전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2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영책임자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의 경우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41.7%),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 등의 답변이 나왔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이 61.5%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기아 노사는 지난 6일 오트랜드 광명에서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왼쪽)와 최종태 전국급속노조기아자동차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건강·환경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 “안전·건강·환경 일터 함께 만들어요”

### 기아 노사 공동선언...중대 재해 예방수칙 공개

기아 노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아 노사는 전남 오트랜드 광명에서 최준영 대표이사, 최종태 전국급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건강·환경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기아 노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임직원과 사내 협력사 직원의 안전·건

강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기아 노사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 예방수칙도 공개했다. 예방수칙에는 위험 행위 요소 발견 즉시 보고, 안전 방호장치 임의 해제·우회 금지, 전기 취급 시 전원 차단 등이 담겼다.

기아는 노사 공동 선언문을 공장과 판매·정비지점에 상시 게시하고, 노

사 공동 현장 점검 활동을 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행의 한 축으로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노사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안전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중대 재해 예방 노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상견례를 하는 등 안전 일터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기수회기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E-pit’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1 그린뉴딜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현대차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E-pit’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 늦으시면 애타하십니다

### 급매 전문

**[ 상가건물 ]**

- 고창 공영면 (2차선 포장도로변)
-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 매가:6억8,000(시세50%)
- \*\*\*가든경관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입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부동산 무엇보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